ARTIST
장-미셸 오토니엘

〈Les Belles Danses〉 2015 베르사유궁전
오른쪽 · 〈사랑의 기하학〉전 전경 2017 프랑스
몽펠리에 까레생트-안느

장식미의 승화

프랑스작가 장-미셸 오토니엘의 개인전 〈사랑에 빠진 기하학〉(세뜨 옥시타니현대미술센터, 몽펠리에 까레생트-안느 6. 10~9. 24)은 실험적 형태와 건축적 구조를 갖춘 묵직한 신작조각과 함께 특유의 섬세한 유리조각작품 컬렉션을 선보인다. 그는 장식적인 조각작품을 통해 관능과 규율, 상처와 아름다움과 같은 양가성을 표현해 왔다. 작가는 흔히 세속적 가치로 치부되는 장식미를 극대화하여 역설적으로 성화(聖化)시키고자 하며, 상처의 기억을 넘어 세계를 감싸 안는 영성의 내면화를 이야기한다.

/ 채연 기자

장-미셸 오토니엘(Jean-Michel Othoniel) / 1964년 프랑스 생테티엔 출생. 프랑스 세르지 국립고등미술학교 졸업. 세뜨 옥시타니현대미술센터(2017), 몽펠리에 까레생트-안느(2017), 발로아 성모승천교회(2017), 국제갤러리(2016), 베르사유궁전 정원(2015), 스위스 도나흐 괴테아눔(2015), 하라현대미술관(2012), 삼성미술관 플라토(2011) 등에서 개인전. 〈하이라이트〉(서울시립미술관 2017), 〈Histoires d'ateliers〉(프랑스 오르낭 쿠르베미술관 2017), 〈Jardins〉(그랑팔레 2017) 등 참여.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2006)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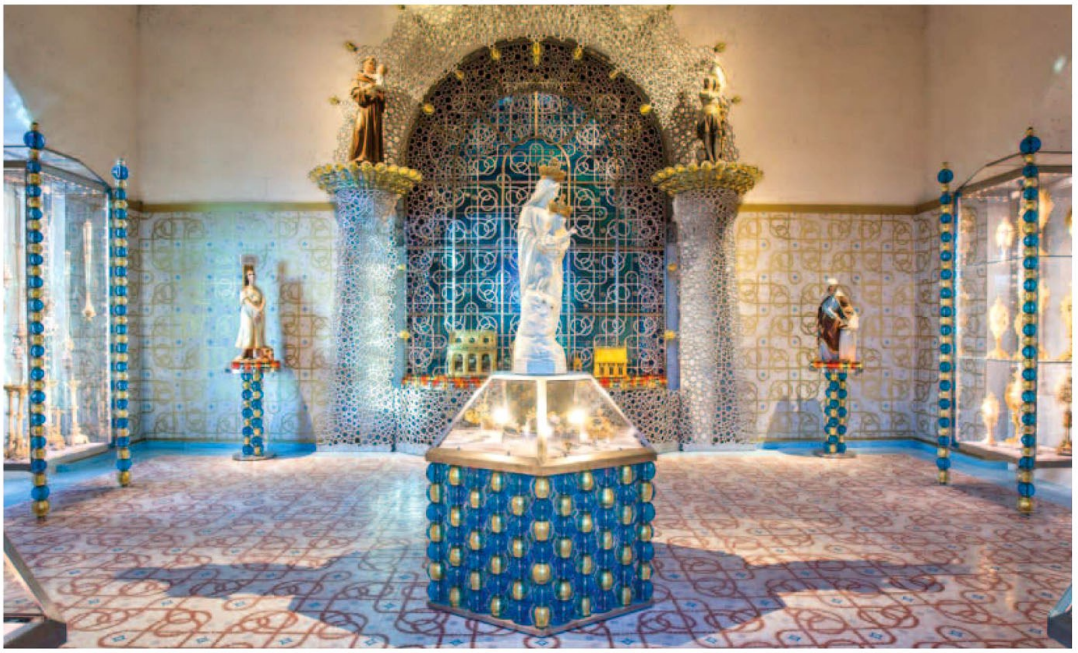
프랑스 최남단의 두 소도시 세뜨(Sète)와 몽펠리에(Montpellier)가 모처럼 미술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프랑스의 대표적 현대미술가 장-미셸 오토니엘(Jean-Michel Othoniel)이 세뜨와 몽펠리에의 미술공간 두 곳에서 동시에 초대형 개인전을 개최한 것. 전시는 전 세계 미술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랜드투어' 시즌, 카셀 도쿠멘타와 같은 날에 막을 올리며 눈길을 끌었다. 전시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작가와 직접 대화를 나누고자 긴 여정에 올랐다. 서울에서 토요일 오전에 출발해 일요일 정오가 다 되어 작은 어촌마을 세뜨에 도착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오토니엘이 손을 흔들어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다.

사랑에 빠진 기하학

파란 줄무늬 보트넥 티셔츠를 입은 오토니엘은 주변의 지중해 풍광과 매우 잘 어우러져 보였다. 훤히 드러난 목선 위로 1997년부터 줄곧 착용하고 있다는 빨강색 유리 목걸이(〈상처 입은 목걸이(Le Collier Cicatrice)〉)가 반짝였다. 그는 2016년부터 파리의 스튜디오 멤버 중 10여 명과 함께 세뜨로 넘어와 전시를 준비해왔다. "날씨도 좋고 음식도 맛있어서 다들 기운이 넘친다. 내가 인터뷰하러 나온 오늘 같은 날이 직원들에겐 곧 바캉스다. 지금쯤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을 거다"라며 웃어보였다.

작가의 이번 개인전은 2011년 세계 순회전 〈마이 웨이(My Way)〉[1] 이후 최대 규모로, 전시구성이 공간의 형태와 유기적으로 조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뜨는 여름마다 열리는 보트시합이 유명하지만, 미술인들은 프랑스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공공미술기관 옥시타니현대미술센터(Centre Régional d'Art Contemporain Occitanie, 이하 CRAC)를 꼭 들러봐야 한다. 과거에 요트보관소로 쓰였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층고 10m, 총 면적 1200㎡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다. 오토니엘은 CRAC의 공간 특성을 십분 활용해 기념비적인 조각신작 및 근작을 대거 선보였다.

한편 대학도시로 알려진 몽펠리에는 구시가지의 중세적 풍경을 뒤로 한 채 뉴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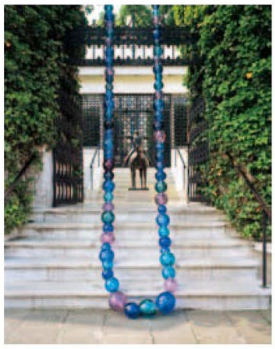


〈앙굴렘의 보물〉전 전경 2016 세인트피에르성당_작가는 한국에서 순교한 프랑스 신부의 유물을 영구전시할 성물함 좌대 태피스트리 스테인드글라스 벽지 바닥장식을 9년에 걸쳐 제작했다.

건설, 이민자유입이 가파르게 이뤄지며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현대미술공간 까레생트-안느(Carré Sainte-Anne) 역시 19세기 신고딕양식의 성당이었으나 현재는 공사를 거쳐 용도를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작가가 직접 모은 자신의 컬렉션전이 펼쳐진다. 이렇게 성격이 확연히 다른 두 전시를 하나로 묶는 제목은? 바로 '사랑에 빠진 기하학(Géométries Amoureuses)'. 그는 제목이 "관능과 규율, 상처와 아름다움과 같은 양가성에 무게를 두고 작업해온 나의 예술세계를 잘 드러낸다"고 설명한다.

세프에서 열린 CRAC 전시는 실험적 형태와 건축적 구조를 갖춘 대형조각의 묵직함이 돋보인다. 검푸른 파도를 형상화한 〈커다란 파도(The Big Wave)〉(2017)가 단연 압도적이다. 인도 유리장인들이 입으로 불어 만든 검은색 유리벽돌을 건축적으로 쌓아올린 작업이다. 다이내믹한 곡선을 그리는 메탈 바에 크롬 도금한 알루미늄 대형구슬을 알알이 끼워서 회오리가 몰아치는 형태로 설치한 〈토네이도(Tornado)〉(2016)는 조각 중앙으로 들어서면 마치 태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듯한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진다. 2016년 서울 국제갤러리 개인전을 기해 제작한 〈검은 연꽃(Black Lotus)〉(2016)은 해외에선 처음 공개됐다. 검게 산화시킨 알루미늄 합금소재 연꽃조각의 사방으로 연꽃의 다양한 움직임을 기록한 잉크 드로잉이 함께 설치됐다. 이들 대형조각 거의 모두가 검정에 가까운 어두운 색 일색이다. 기존의 강렬한 컬러감과 상반된 선택을 한 이유를 묻자 오토니엘은 "기존의 모든 색깔이 섞여서 만든 다중의 색"이라며 "어둠은 나에게 생명을 상징한다. 우리의 지구도 태초에는 어둠에서 시작됐다. 여자의 자궁에서 잉태되는 인간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다"고 덧붙였다.

세프는 작가가 1988년 빌라생끌레어



위 · 〈Peggy's Necklace〉 유리,
금속 837×120×80cm 2006
페기구겐하임컬렉션 전시전경
아래 · 〈L'Arbre aux Colliers〉
유리, 스테인리스 스틸 가변크기
2003 뉴올리언스미술관 전시전경
오른쪽 페이지 · 〈사랑의
기하학〉전 전경 2017 세뜨
옥시타니현대미술센터

(Villa Saint Clair)레지던시 작가로 생활했던 곳이기도 하다. 30년 만에 세뜨로 귀환한 작가는 젊은 시절 애착을 가졌던 재료로의 귀환도 감행했다. 바로 흑요석이다. 그는 1992년 아르메니아 화산지대를 탐사하며 직접 채취한 흑요석으로 작은 조각 〈새로운 재주(Le Contrepet)〉를 만들었다. 그리고 20년이 훌쩍 넘은 2015년 사람의 두상보다 훨씬 더 큰 흑요석 원석을 깎아 〈볼 수 없는 얼굴들(Invisibility Faces)〉을 선보인 것이다. "처음 흑요석을 만났을 때 느꼈던 미스터리를 제대로 표현하는 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다. 흑요석은 뜨거운 용암에서 비롯된 강한 재료지만 동시에 깨지기 쉬운 유리라는 양가적 성질을 갖고 있다. 나는 이따금씩 스스로가 '거울'이라고 느낀다. 이 작업은 타인을 은근하게 비춰 보이는 검은 거울로서 나의 자화상이 된다." 전시는 이밖에 〈야행자들의 키오스크(Le Kiosque des Noctambules)〉(2000), 〈나의 침대(Mon Lit)〉(2003), 〈페기의 목걸이(Peggy's Necklace)〉(2006) 등 기존 대표작의 아이디어 스케치 100여 점도 함께 선보였다.

바로크적 감수성

오토니엘의 섬세하고 매혹적인 유리작품은 프랑스 럭셔리 패션하우스의 사랑을 톡톡히 받아왔다. 홍콩(2005), 비벌리힐스(2007) 등 샤넬의 주요 플래그십스토어에서 건축가 피터 마리노가 작가를 위해 특별히 설계한 공간 안에 대형 목걸이 조각이 영구설치됐으며,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과는 1992년 커미션 작품을 제작한 인연으로 홍콩 도쿄 서울 등에서 열린 기획전에 꾸준히 초대받았다. "부띠끄에 설치된 내 작품은 그곳에서 유일하게 판매하지 않는 '공짜' 오브제다(웃음). 사람들이 예술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선물이다." 오토니엘은 그동안 공공미술 작업에 적극 참여해온 것 역시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야기한다. "작가는 언제나 타분야의 사람들과 만나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컬렉터 뮤지엄 갤러리 뿐인 아름답지만 폐쇄적이고 고립된 세계에 갇히고 만다. 세계의 문제에 대해 반응하는 작업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한다."[2]

몽펠리에 까레생트-안느 전시는 이러한 그의 섬세하고 정교한 유리조각 대표작이 한데 모여 또 하나의 새로운 설치작품을 이뤘다. 전시된 모든 작업이 작가 자신이 직접 수집한 컬렉션이다. 과연 어떤 기준으로 작품을 소장해온 걸까? "나의 인생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아주 개인적인 컬렉션이다. 여행에서 비롯된 것도 있고, 새로운 기술을 실험한 종류도 있으며, 누군가를 떠올리며 만든 작업도 있다." 또한 그는 컬렉션을 계속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단을 설립하려는 꿈을 조심스레 내비쳤다.

과거 예배당으로 쓰였던 공간 전체를 텅 비워낸 까레생트-안느 내부에는 사방이 붉게 칠해진 벽체를 배경삼아 형형색색의 유리작업이 공중에 떠올랐다. 중앙통로에 영롱한 푸른빛 유리벽돌이 깔리고, 그 위에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의 사망 1주기 추모 퍼포먼스에 사용했던 〈상처 입은 목걸이〉(1997), 남성 성기를 연상시키는 붉은색 조각 〈비너스 나막신꽃(Sabot de Venus)〉(1997), 여성의 가슴을 본뜬 목걸이 모양 대형조각 〈흰 강(Rivière Blanche)〉(2004) 등이 각기 다른 높이로 내걸렸다. 전시장 외벽의 스테인드글라스 사이로 태양이 투과해 들어오며 이 지극히 '사적인' 오브제들을 은근하게 비췄다. 작가의 삶의 각 순간을 장식했던 주요작품이 투명하게 푸른 강 위를 도도히 흘러가는 형상은 마치 그의 삶 전체를 은유하는 초상처럼 보인다.

한편 입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중앙벽면 꼭대기에는 전시제목과 동명의 십자가 조형 〈사랑에 빠진 기하학〉(2004)이 서있다. 다른 모든 작품을 내려다보는 구도다. 십자가가 세워진 자리 아래쪽에는 작가의 첫 흑요석 조각 〈새로운 재주〉가 걸렸고, 입구 쪽 통로에는 성당의 성수 받침대를 빼닮은 푸른 유리조형물 〈처녀 정원사(La Vierge du Jardinier)〉(1995)가 십자가를 마주보는 구도로 설치됐다. 까레생트-안느에 종교적 모티프를 담은 작품이 들어온 것은 2011년 개관 이후 처음이다. 1986년까지 실제 미사를

집행했던 성당이었기 때문에, 용도변경 이후에는 공간의 중립성을 지키고자 종교적 아이콘의 전시를 꺼려왔던 것이다.

가톨릭 집안에서 자라난 오토니엘은 지금은 "예술이 나의 종교"라고 말한다. 〈마이 웨이〉전에서 선보였던 새하얀 사제복 〈신부의 가운(Priest's Robe)〉(1986)이 떠오르는 순간이다. 작가는 청년시절 사제를 꿈꾸던 남자와 교제했는데, 그가 성직과 사랑 사이의 갈등 때문에 자살한 아픔을 겪었다. 이후 20여 년이 흐르고 나서야 이 작품을 공개하며 자신의 상처를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는 최근 "이제 상처로부터 자유를 얻어 한 발짝 앞으로 나왔고, 영성을 추구하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3]고 말한 적도 있다.

오토니엘은 최근 프랑스 전국의 성당에서 연이어 전시를 열고 있다. 2016년 9월 앙굴렘 세인트피에르성당(Cathédral Saint-Pierre)의 커미션 프로젝트 〈앙굴렘의 보물(Le Trésor d'Angoulême)〉, 2017년 2월 발로아 성모승천교회(Église Notre-Dame-de-l'Assomption)의 작가 컬렉션 전시 〈잠자는 장례행렬(Le Cortège Endormi)〉을 선보였다. 특히 〈앙굴렘의 보물〉은 1866년 한국에서 순교한 프랑스 신부 성 오메트르(Saint Pierre Aumaitre)의 유물이 이 성당에 기증되면서 유물을 보관할 성물함 및 공간연출 일체가 작가에게 일임된 초대형 프로젝트. 프랑스 가톨릭 교계 및 프랑스 문화부의 의뢰를 받아 9년에 걸쳐 제작했다. 블루 골드 블랙의 3색을 주조로 특유의 유기적인 모티프가 강조된 성물함, 좌대, 태피스트리, 스테인드글라스, 벽지와 바닥장식 등이 공간을 감싸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정 종교를 넘어 모든 종교,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도 호소력을 가지게 하고 싶었다. 물론 가톨릭 오브제가 다른 종교인에게 말을 건다는 나의 의도는 많은 성직자들의 반대에 부닥쳤다. 다행히 내가 함께 일한 주교들은 자신들의 공간을 다른 종교를 위해 열어줄 용의가 있었다. 작가로서 인간과 영성 사이에 다리를 놓고자 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작가의 바로크적 감수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가 추구하는 '영성'이라는 심오한 가치를 일견 피상적으로 느껴지는 장식적 오브제와 결합시켜서 결과적으로 물질성 및 육체성과 초월성, 현상과 본질을 배제하지 않고도 하나로 융합시킨다는 점에서다.[4] 바로 이런 시각에서 오토니엘 신작에 나타난 장엄한 아름다움의 진정한 가치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당대의 미스터리를 비추는 거울

작가는 아시아 각지를 여행하면서 사람들의 장식성과 아름다움에 대한 접근이 유럽보다 훨씬 더 도드라진다고 느꼈다. "유럽 문화권에서 장식성은 피상적 가치로만 취급되지만, 아시아에서는 장식성이 궁극의 아름다움과 연결된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인기 있는 벚꽃놀이를 보라. 사람들이 벚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집단적으로 감동을 받지 않는가. 여기서 아름다움은 피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정말로 내면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한다."[5]

그는 또한 글로벌화로 인해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하며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게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지구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공포스러운 감정 또한 느낀다고 말한다. "환경이 변화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달리 보고 달리 반응하게 된다. 미술은 이러한 위험을 앞서 인지하고 그것을 반영해낸다."

한편 오토니엘과 만나기 불과 4일 전인 지난 6월 1일 미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선언을 했다. 작가는 이 사건을 섬뜩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인다. "세계가 점점 더 위험해질수록 영성을 추구하는 나의 작업은 더욱 더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품는다고 믿는다. 작품을 완성하고 첫 번째로 놀라는 것은 작가 자신이다. 그 결과물에서 이 세계의 현실이 묻어나기 때문이다. 세계가 변화하면서 예술작품은 세대를 향해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울이 된다. 모든 세대가 예술에서 미래를 향한 각기 다른 비전을 발견하고 당대의 미스터리를 풀어낼 열쇠를 발견할 것이다. 나는 진정으로 그런 작업을 하고 싶다."

〈Black Lotus〉 알루미늄, 스틸
150×150×150cm 2016
국제갤러리 전시전경
왼쪽 페이지 위 · 〈The Big Wave〉 검은 유리벽돌, 철
535×1,500×510cm 2017 세뜨옥시타니현대미술센터 전시전경
아래 · 〈Invisibility Faces〉
흑요석, 나무 가변크기 2017 세뜨옥시타니현대미술센터 전시전경

1) 〈마이 웨이〉전은 작가의 20년간의 활동을 총망라한 회고전. 40대라는 이른 나이에 여는 회고전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파리 퐁피두센터에서 처음으로 열렸고, 이후 서울 삼성미술관 플라토에서 해외 순회전의 첫 전시이자 작가의 한국 첫 개인전으로 소개됐다. 전시는 작가의 삶 속 내밀한 경험을 작품을 통해 고백하는 성격이 컸다. 사진가로 출발한 그의 초기 사진작품 〈사제복을 입은 자화상(Self-Portrait in Priest's Robe)〉, 항문부위를 확대해 묘사한 조각 〈영광스런 구멍(Glory Hole)〉, 대표작 〈상처 입은 목걸이〉, 현장형 설치 〈소원을 비는 벽(The Wishing Wall)〉 등이 출품됐다.

2) 오토니엘은 패션 외에도 무용, 문학 등 인접분야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2015년 베르사유궁전 정원분수에 설치한 〈아름다운 춤들(Les Belles Danses)〉에서도 댄서들과 협업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2016년 국제갤러리 개인전에서 선보인 〈검은 연꽃〉도 프랑스 낭만주의 시인 랭보의 〈보이지 않는 찬란함〉, 보들레르의 〈악의 꽃〉의 양가적인 제목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것이다.

3) 정재혁, 〈자연의 매듭〉, 〈보그 코리아〉, 2016년 3월호

4) 전형준, 〈성상 파괴주의와 성상 옹호주의〉(살림 2003)

5) 그는 2016년 〈검은 연꽃〉 전시를 위해 한국에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이때 고궁의 건축구조, 특히 지붕의 서까래에 진회색을 사용한 감각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너무나 완벽하지만 동시에 섬세하고 유약한 연꽃의 색상을 검정색으로 결정하는 데 영감을 줬다." 물론 이 검정의 의미는 다중적이다. 연꽃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청결함을 지키는 종교적 상징으로 인식되는데, 이를 검게 물들인다는 것은 신성의 세속화,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의 파괴 등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